朝鮮日報 朝刊

社說 工場法制定問題

一

總督府에서는 朝鮮에 工場法을 實施할 意嚮으로 昨年末부터 立案中이던바『農業朝鮮으로부터 工業朝鮮으로 轉換하려는』此際에 工場法을 實施하게되면 工業의 發達을 그 萌芽로부터 阻害할 憂慮가 잇다。는 殖産局의 時期尙早說에 依하야 立案中에 잇던 工場法制定의 企圖는 有耶無耶裡에 挫折될 形勢로 기우러젓다고 한다。그러나 우리로써 보면 殖産局側의 이 時期尙早說은 一時代錯誤일뿐만아니라『朝鮮社會』가 工場法의 實施를 要求하는『時期』에 對한 認識不足으로부터 나온 謬說이라고 밧게 다시 評할말이 업다。

二

工場法이라는것은 幼年工婦人勞働者問題에 關하야 最低年齡과 就業時間, 夜業과 危險有害作業의 禁止及産前産後의 保護를 主要內容으로한 法規로서 工場勞働者特히 幼年工及婦人勞働者에 對하야 그들이 勞働者인 境遇로부터 밧는 害惡을 防止하야 그 生存權을 擁護하며 그 幸福을 增進하기爲하야 工場主와 勞働者에 行할수 잇는 自由契約權에 制限을 設하는 法規이다。따라서 工場法에는 그 目的에 두가지가 잇스니 그 一은 工場法의 實施에 依하야 勞働者 特히 幼年工及婦人勞働者의 虐使를 制限하려는 人道上의 目的이 그것이오, 他의 一은 工場法의 實施에 依하야 勞働者의 能率을 增進시키어 써 一國工業의 進步發達을 計하려는 國家經濟上의 目的이 그것이다。

三

기다란 說明을 가다릴것도 업시 幼年工及婦人勞働者의 虐使는 그들의 健康及生命에 對하야 一大脅威를 줄뿐만 아니라, 이것을 國家社會의 立場으로부터 보면 그들의 虐使는 作業能率의 減殺를 招致하고 作業能率의 減殺는 一國工業全般으로서의 衰退衰微를 招致하는것이다。故로 國家가 工場法을 制定하야 此를 實施하는것은 決코 勞働者만을 保護하려는것이 아니요 어데까지 一國內의 工業全般의 進步發達을 計하야, 써, 勞資兩方의 共存共榮의 實을 擧하자는 意圖로부터 나오는것이다。이러케 보아오면 世界各國이 거이다 工場法을 가지고 잇는 今日, 또는 日本內地에서도 此法의 實施를 본지가 이미 十有九年이 된 今日에 잇서서 工業朝鮮으로의 轉換에 對한 阻害가 된다는것을 理由로하야 工場法의 制定에 反對하는것은 時代錯誤가 아니면 事物의 半面만 보는 偏見이라 고할수박게 업다。

四

또한 우리로써 보면 殖産局에서 드는 理由는 工業法實施延期의 理由라기보다도 도리어 工場法을 必要로하는 問題가된다。何故오하면 朝鮮이 現在、工業朝鮮으로 轉換하려는 情勢에 잇기때문으로 工場法을 必要로 하는것이다。萬若朝鮮이 農業朝鮮그대로 잇다고하면 工場法은 이것을 實施해보앗댓자、結局아모 對象이업는 空文으로化할것이다。또한 이것을 日本內地의 實例로 본다고할지라도 工場法은 日露戰爭後에 잇서서의 産業의 振興、工場의 增設이 興論을 促進하야 工場法으로 되여 明治四十四年 三月에 法律로 公布된것이다。이러한 見地에 잇서서 우리는 工場法의 必要를 力說하야 殖産局及 이와가튼 意見을 가진 當局의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豫備會談의 決裂은 日本政府의 責任

日英同盟復活의 阻止가 急先務

올드、델리그람紙論調

【紐育十三日發聯合】올드델리그라프紙는 十二日紙上에 社說을 揭載하야 日英兩國接近報道에 言及하야 如左히 論하고잇다

休戰記念日에 當하야 로이드조지氏 멜디낙스氏等이 戰爭勃發의 危險性을 强調한것은 注目할 價値가잇다 事實歐羅巴에나 極東에나 現在不安狀態가 膨脹되여잇다 그러나 가장 念慮되는것은 倫敦海軍豫備會談의 事實上決裂은 日本政府의 强硬態度에 依한것인데 英政府가 米政府와 結托하야 華府、倫敦兩條約에 支持態度를 取하지안한것은 意外이며 또 世界平和를 爲하야 危險하다 滿洲事變當時 英政府는 日本의 態度를 暗默裏에 支持하엿는데 今回도 華府倫敦兩海軍條約의 廢棄에 依하야 米國을 孤立식히려하고잇다 英國民一般이 現在의 保守黨內閣政策을 支持하고잇는지 엇전지 疑問이다 萬若英國民이 이 危險한 政策에 反對하면 日英同盟復活이 進行되고잇는 現在의 氣運을 阻止함이 急務이다

英政府內輿論은 親日、親米로分裂

三國關係去益微妙

【倫敦十三日發聯合】軍備均等原則을 承認한 妥協試案提出以來 日英米三國의 政治的關係는 微妙한 動向을 表示하야 海軍豫備會談의 前途도 어느程度까지 이 動向如何에 依하야 支配되는 形勢를 보이고잇다 日英兩國의 接近傾向에 米代表以外 英自治領政府도 重大關心을 表示하고잇는것은 隱蔽할수업는 事實로서 이지음 南阿聯邦代表스맛쓰將軍은 特히 世界大戰後確立된 英米兩國의 共同政策堅持를 主張한것은 右會談에 對한 自治領各政府의 見解를 宣明하야 英本國政府에 警告를 준것이라하야 俄然 英國朝野에 重大反響을 惹起하고잇다 英政府가 十三日特히 自治領代表를 自治領省에 招致하고 豫備會談의 經過妥協試案內容을 說明한것은 右스맛쓰將軍의 演說에 刺戟되야 自治領政府의 誤解를 풀라는것으로 解釋되는데 如何든 自治領政府代表의 見解는 各自治領은 事實上 英海軍의 保護가 밋치지못하야 加奈陀、濠洲、뉴질랜드其他各自治領은 米海軍의 保護를 밧고잇는 現狀에 鑑하야 米政府와의 親善關係를 斷絶함은 自治領政府로서 同意할수업다는 旨를 十二日會議에서 自治領代表로부터 率直히 表明하엿스리라고 밋는다 他方英本國의 輿論은 海軍豫備會談이 失敗되는때의 增稅를 두려워하며 또 産業界及財界에는 日本과의 親善을 繼續하려는 傾向이 濃厚함으로 英政府로서 日本과 重大紛糾를 일으킨 境遇에 米國이 英國을 最後까지 支持치안할것은 明白한즉 日本과의 紛糾를 惹起함은 絶對避할것이라는 物論이 有力하야 只今英本國政府에는 妥協試案을 支持하는 親日派와 米國과의 親善關係를 强調하는 兩派에 分立되여 新聞界에서도 種種한 態度를 表示하고잇다

上海申報社長暗殺 犯人은藍衣社一派？

【上海十三日發聯合】上海申報社長史科法氏가 十三日午後二時半 杭州로부터 上海에 赴하든 途中海寧附近에서 六名의 暴漢에게 襲擊되야 即死하엿다 右犯人은 目下嚴探中인데 暗殺裡面에는 申報가 共産黨에 對하야 同情的言論을 한 關係로 藍衣社一黨에게 狙擊된것으로 보이여 上海新聞界는 一大衝動을 일으키고잇다

米記者의 臆測報道를 英國側에서 抗議

『먼저 疑念을 一掃케하라고』 米代表部直時回答

【電通倫敦十三日發】今日米代表部에 對하야 英國側으로부터 正式으로 倫敦에잇는 米新聞通信記者가 最近日英接近에 對한 臆測的報道를 發한 點을 指摘하야 抗議를 提出하엿다 이에 對하야 米代表部는 直時英國側에 對하야 口頭로써 米代表部로서나 又는 華府當局으로부터 米國新聞의 뉴스를 統制又는 指導할수는 업다 또 이를 하려는 意圖도 업다 다만 不穩한 新聞報道를 除却할 가장 效果的 報道는 英國側이 그 政策을 鮮明히하야 英國이 日本과 너머나 親密하다는 疑念을 一掃하는것이라는 旨의 回答을 하엿다

獨逸의 巨人飛行機 世界의 巨人飛行機로 有名한 獨逸의 독스號는 航空省의 크리스차안젠氏指揮下에 十九人의 旅客을 실고 【프리드리히·하펜】으로부터 北海道沿岸諸國訪問의 親善飛行에 出發하엿다 寫眞은 快翔中인 독스號와 飛行指揮者크리스차안젠氏及 巨大한 독스號의 機關部

新對案作成希望을 英側에서開陳할터

第二次英米會談에서

【電通倫敦十三日發】사이먼英外相의 突然英米第二次公式全員會談을 米國側에 申請한데 關하야는 日本代表者側으로부터 英國妥協案에 關한 拒絶的回答內示가 잇슨까닭이라는 說이 傳하는데 日英代表部는 모다 正式으로 이를 否定하고잇다 事實은 오랫동안 無交涉狀態에 잇든 繼續된 英米代表部間의 疎隔을 融和하야 米新聞이 宣傳하는 日英提携說等의 誤解를 一掃하려는 目的에서 나온것이라고 보이는데 權威側에서 듯는바에 依하면 右會商은 英代表側은 英國이 日米兩國의 主張의 中間에서 最善의 熟慮를 한 結果 新妥協方式의 可能性을 日本代表部에 相談한것이라고 詳細說明한後 米代表部에 對하야도 日案만 固守치말고 日英의 意見을 考慮하야 新對案을 編成하야써 會商의 進行을 圖하려는 旨의 希望을 開陳할 方針인듯하다 따라서 英米間의 見解의 懸隔은 十四日의 會見에서 가장 明確히될터로 맥도날드議長은 이에 基하야 다시 日英會商에 臨하야 第二의 妥協方式樹立을 期하려는듯이 보인다

米海軍方針決定

메큰級新造의立案開始 廿四隻의建艦準備進行

小型戰艦建造는保留

【電通華盛頓十三日】米海軍當局에서는 當座의 海軍計畫에 關하야 左記方針을 採用키로 決定하엿다

一、빈손氏의 新提案인 메큰級飛行艇二隻新造에 關하야 具體的立案을 開始할일

一、一九三五年度豫算으로서 承認을 어든 二十四隻의 建艦準備를 進行할일

一、新造計畫에 模樣變更을 加하야 小戰艦을 建造함은 米海軍에는 不適當한즉 當分保留할일

武器取引取締案 米政府提出

【華盛頓十三日發聯合】米政府는 一九二五年의 武器彈藥軍用器材의 國際的取引을 取締함에 關한 條約에 基하야 다시 具體的 武器取引取締案을 起案하야 軍縮幹部會에 提出키로 決定하엿다 國務長官은 十三日右方針을 聲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米政府는 武器彈藥製造販賣及輸出入에 關하야 一九二五年의 武器取締條約에 基한 政府許可制案을 起案하야 英、佛、伊各國代表에게 右案의 詳細를 內示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 米政府로서는 軍縮幹部會가 右武器取引取締案을 受諾하기를 希望하고잇다

馬占山氏軍官校

軍事顧問에就任

【天津十四日發聯合】今年十月頃까지 天津英租界에 居住하고잇든 馬占山氏는 今般南京政府의 招請에 應하야 十一月十五日부터 南京軍官學校의 名譽軍事顧問으로 赴任할 豫定인데 反日派의 氣勢가 益益昂揚되는 此際 今後馬占山의 行動에 關하야는 相當히 注目되여잇다

復活要求對策을 町田商相에게依賴

廿二日까지本豫算解決方針

翰長、商相에게要望

【東京電話聯合】政府는 十九日臨時閣議를 開하고 災害對策豫算을 비롯하야 來年度復活要求를 審議하기로되엿는데 豫算에 對하야 藤井藏相은 健全財政公債漸減方針을 堅持하고잇스나 各省의 復活要求가 非常한 巨額에 達하여잇슴으로 其對策을 焦慮하야 吉田書記官長이 十四日 町田商相을 訪問하고 各省復活要求는 陸海軍을 爲始하야 非常한 巨額에 達하기때문에 政府는 健全財政主義를 堅持하야 公債漸減方針을 取할터임으로 各省이 어데까지 巨額의 復活要求를 固守할 境遇에는 閣內에 大波瀾을 招致하게 될는지도 알수업다 그러나 政府로서는 이 健全財政의 方針만을 固守할터임으로 萬一閣內에 波瀾이 起할 境遇에는 長老로서의 努力을 希望하야 잘 諒解하여달라는 意味를 述한 模樣이다 이것은 岡田首相이 財政에 익숙치못한 關係도 財政的紛糾를 生할 境遇에 其措置에 對하야 미리 財政通인 町田商相에게 長老로서의 助言을 빌기爲하야 協議한것으로 政府는 十八日各閣僚가 歸京하면 速히 政治的折衝에 依하야 豫算編成을 促進하야 災害對策豫算은 分離하야 決定하지안코 本豫算의 決定을 急히하야 늣드라도 二十一、二十二兩日까지에 本豫算의 解決을 圖할 方針이다

菱刈司令官 臨議前에辭任

後任은南大將有力

【大連十四日發聯合】在滿機構問題에 關한 現地의 情勢는 漸次鎭靜되엿슴으로 일즉부터 懸案으로 되여잇든 菱刈關東軍司令官의 辭任은 臨時議會前에 行하고 後任은 渡邊大將說이 잇스나 結局旣定方針대로 南大將으로 決定되리라고 觀測되는바 關東廳、滿鐵首腦部의 有力한側의 情報는 大體로 一致되여잇다

岡田首相歸東

【電通東京電話】陸軍特別大演習의 陪觀을 終了한 岡田首相은 十四日午後二時十六分 上野驛着列車로 歸京하엿다

白耳義內閣總辭職

閣員間意見不一致로

【電通부랏쎌十三日發】白耳義內閣首相데부록뷔니伯은 今日閣員의 辭表를 綜合하야 陛下에 捧呈한後 直時下院에서 總辭職의 理由를 發表하엿다 總辭職原因은 豫算案의 閣僚間의 個人的軋轢이라고 一部에 傳하나 事實은 政府의 計畫遂行에 잇서 閣員間에 意見이 不一致되고 또 無任所相 인덴부리브及 반기ㅣ란드 兩氏가 辭任한데 依한것이라 한다

吉田翰長 床次遞相訪問

【電通東京電話】吉田書記官長은 十四日午後五時 東大久保私邸에 床次遞相을 訪問하고 災害復舊豫算과 明年度豫算의 關係閣僚間의 政治的折衝에 對하야 仲介斡旋을 行하야 豫算折衝의 圓滿한 遂行에 盡力하여달라고 希望한바 床次遞相의 快諾을 어더 豫算問題其他에 關하야 種種意見을 交換하고 辭去하엿다

日本內地總人口 六千八百十九餘

【電通東京電話】內閣統計局 十四日發表

今年十月一日現在日本內地의 人口를 推計하면 六千八百十九萬四千九百人으로 此를 前年推計에 比較하면 九十五萬六千三百人이 增加되엿다 그리고 總人口中男子는 三千四百二十七萬九千三百人 女子는 三千三百九十一萬五千六百人이다

藤井藏相 首相과協議

【電通東京電話】藤井藏相은 岡田首相의 大演習陪觀으로부터의 歸東을 기다려 十四日午後五時半 永田町首相官邸에 首相을 訪問하고 臨時議會에 提出할 災害復舊豫算의 大藏省査定結果와 明年度豫算에 對한 各省復活要求狀況과 事務的折衝經過와 時局不安一掃에 對한 事務代表와 日銀興銀의 有志及協議等의 詳細說明報告한後 增稅案과 防衛豫算에 關한 藏相의 所信을 披瀝하고 今後政治的折衝方針의 協議를 遂하엿다

利得稅收入 年四千萬圓

【電通東京電話】今回의 臨時利得稅收入豫想額에 關하야 財界에서는 大藏省이 故意로 過少히 豫想하나 實際는 相當히 巨額에 達할것이라 觀測이 行해짐에 對하야 大藏省에서는 十三日主計局原案을 檢討한 結果 收入豫想初年度 年額三千萬圓、次年度以降 年額四千萬圓은 大體妥當하다는데 意見이 一致되엿다 卽 이에 關한 大藏省의 豫算主査는 昭和八年八月부터 九年三月까지의 法人所得에 關하야 稅務當局에서 調査한 總額七億八千萬圓에다가 若干額의 增加를 推算한것임으로 昭和五、六年의 平均所得額과 比較하면 그 差額約三億五千萬圓程度가 特別利得이 된다 그 課稅를 一割이라고 보아 三千五百萬圓과 다시 個人所得이 大體五千萬圓이라 고 豫想되는 그 一割課稅가 五百萬圓假定되야 結局 法人、個人을 通하야 모다 利得稅年額 四千萬圓이라는것이 算出된다는것이다

永井駐獨大使勇退 後任은武者小路子

【東京電話聯合】일직부터 勇退를 決意하고 賜暇歸朝要請中이든 駐獨大使 永井松三氏는 드디여 來十九日橫濱入港의 秩父丸으로 歸朝키로되엿다 同大使의 勇退決意는 依然强固하야 外務省當局에서도 後任銓衡에 銳意協議中인데 廣田外相은 現駐土大使 武者小路公共子爵을 最適任者로 認定하고 不遠間任命手續을 取하야 正式決定키로되엿다 이리하야 武者小路氏는 任命되는대로 赴任하야 나츠스獨逸에 對한 日本外交陣容을 擔當할터이다

人事·集會

▲프리크·크라멜夫人及딸가렛트·와벨트산夫人(萬國國際赤十字委員)十四日午前三時五分入京朝鮮호텔에投宿

▲佐伯顯氏(新任京畿道警察部長) 夫人家族同伴 十四日午後三時四十四分 京城驛着列車로赴任

夕刊後의市況 十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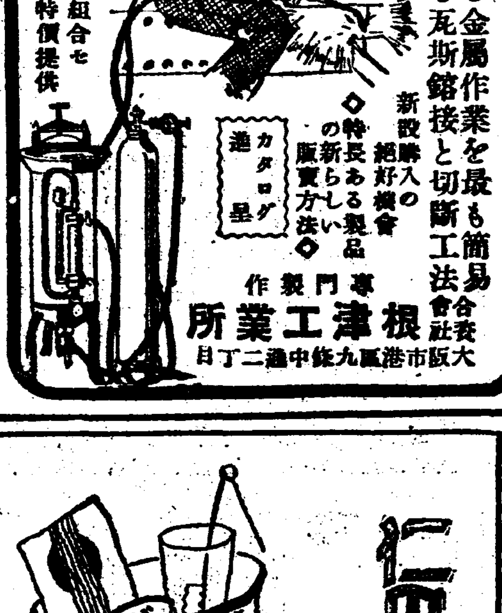
朝取短期 / 東京短期 / 大阪短期 / 橫濱生糸 — [illegible]

大阪短期 氣配

大新	八七八〇	(二〇高)
鐘新	一二六一〇	(不變)
日産	一〇八七〇	(五〇低)
東新	一二九六〇	(四〇高)

橫濱生糸 當限 五五三〇〇 先限 五六八〇〇

人絹 先限 八九〇〇



總ゆる金屬作業を最も簡易化する瓦斯鎔接と切斷工法
新設購入の絕好機會 ◇特長ある製品の新らしい販賣方法◇
要具一式組合せ 大奉仕特價提供
カタログ進呈
專門製作 根津工業所 大阪市港區九條中通二丁目
本案內廣告一手特別扱 大阪西區本田一番町 滿鮮信報社

丸エム製作所 (カタログ進呈)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四丁目 營業所
電話新町三六二二番
大阪市旭區野町六四二 工場
京都市東九條山王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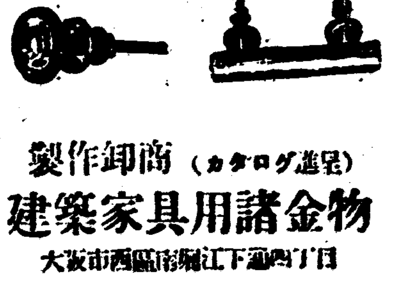
新治療劑 醫學博士村上顯先生創製
高血壓、萎縮腎、狹心症、腦溢血(中風卒倒)動脈硬化症
ネオムラルガン錠
發賣元 三高屋藥品株式會社 大阪市西區北堀江上通二丁目十二
(新聞名記入申込次第病理說明書送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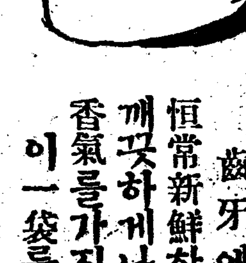
本舖 松本正商店 大阪市東區農人橋詰町

信用할만한 萬年筆製造問屋
大量生産主義에依하야 廉價提供 品質保證
澤井商會製作所 大阪市北區菅原町五丁目 電話南一〇五一番
(カタログ進呈)

弱い子供に 健見丸
婦人病には 體安湯
朝鮮京城府花園町一〇一 栗田小松堂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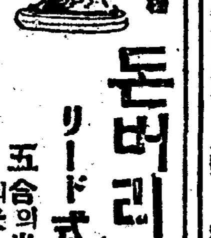
低廉現金仕入は 問屋
錢入・タバコ入・パイプ 眼鏡一般・時計用バンド ユビワ・クサリ・萬年筆
商報呈 豐田源三郞商店 大阪市南久寶寺町三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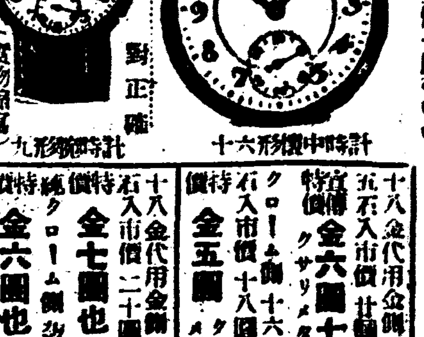

大阪著名問屋案內
製作卸商 建築家具用諸金物 (カタログ進呈)
山口安一商店 大阪市西區南堀江下通四丁目 電話櫻川五九三九番



당신의 齒牙에는 恒常新鮮한色澤과 깨끗하게나는 香氣를가진 이一袋를꼭

毛生藥 후미나인
病에依하야毛髮이脫落될時其脫落을防止하고또 이諸病에原因한禿頭脫毛에對하야서도病菌을殺滅식혀서그와갓치털을나게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털어털빠진대●대리꼭지상한대●눈썹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꼭잇슬곳에털업는분……은 一考치마시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후미나인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即時送藥함
模造品만흠 꼭후미나인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藥院 東京市芝區田村町四 大阪市天王寺區十字病院前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博士創製한 털나는藥


돈버리大王 리ード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로된다
東淀川區本庄西江 大阪市 兒島製作所


新製品萬人向特選十八金代用金側時計大賣出
純瑞西 特製1934 新型
十八金代用金側十五石入 特價 金六圓七拾錢
十個年保證付
歐米洋行時計部 新義州府

滿洲移民經營의 營利會社代行問題

移民農民에不利하지안홀까

再檢討할總督府方針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에 잇서 농업이민의 농장관리기타 이민사업일체를 현재에잇서서는 동아권업 주식회사에게 대행식히고래명년도부터는오천만원의대정비로신계년계속사업으로한다는바만일 이민은역시 반관반민의이민회사를 조직하야 이에위임대행식히는데 이에대하야 특히 주목할것은석간에 긔보한바와가튼 영구(營口)이민의 회수금문제와가튼분규를이르키게 되지안홀까하는것이다이민사업을사단법인(社團法人)조직가튼 것으로하면모르되거액의보조금은지급한다할지라도결국이것을 영리회사에 대행식힌다면 회사 당국은 상당한리익을 예상하고 모든것을 시행하게될터이니 두주먹만 부르쥐고 만주로가족을다리고간 농민이 소작료이상 이나되는 회수금을 납부하고한 가족의 생활을유지하며 자제의 교육을 식힐여유가 생길수잇슬가하는것는결코간단한문제가안이다이번영구이민의회수금문제는총독부당국의만주이민정책에 새 연구재료가 된것이니 영리 회사에게 대행식히는 총독부당국의이민 정책에대하야는 충분한재연구가 필요하다고 식자의 부르짓는소리는놉하간다

失踪된遭難漁船 群仙近海서發見

救助發動船이急히出動하여

新昌漁船遭難事件

【咸興支局特電】 긔보=함남 신창(新昌)항에서 조난한 어선 중에십사일 오전아홉시 반까지 행방불명한것은 다섯척에 삼십삼명인데 그중신창에 선적을둔 것은한척에 일곱명이고 기타는 모다강원도에 선적을 둔것이다 그리고 오후령사까지 함남산업과에도착한 전화보고에 의하면 미판명자 오척중에 세척은함남 군선(群仙)압바다에서표류하는 것을발견하고즉시구조하려고북양환과신창환(新昌丸)이출동하얏다 이외에 강원도의소속인 제삼금강환(第三金剛丸)은신창항바갓야백해리쯤되는곳에서팔일아츰에 여섯명의승조원을일코 부인배만표류하다가십사일아츰다섯시에 겨우신창에 입항하얏다

土兵의妨害로 超特急이大遲延

【平壤支局電話】 신경(新京)에서오는국제특급렬차노조미二가십사일 오전열시이십삽분에 평양에 도착할예정이든것이 정시보다 한시간팔분이 연착되얏는데이제그리유를조사하건대만철산오룡배(五龍背)한막당(給?)사이에서토병들이 나타나 [레일]싱어개나나사못쏫빨아노아서선구차(先驅車)가이것을발견하고을금수러듬하느라고느젓는데다행히아모일도업섯다한다 동열차는 경성에도 예정시각보다오십시분이 연착되얏는데 부산까지가는 사이에얼마간 회복은되나그래도예정시간보다는좀 느지리라한다

醫師三種試驗 合格者

저간실시중에 잇든 의사시험중 제일제이부에 합격한 실자시험 내외과제삼부의합격자는십이일 발표하얏다

崔晩春 李鼎壽 李仁淳 劉元鈞 吳錫俊 吳錫炯 李河星 金承文 成秉泰 陳斗玉 吳漢權 金昌權 鄭秉瀾 金秉條 金蓮夏 金順植

◇…겨울준비는 빨래로부터 (작일시외에서)

新義州大火 義昌製材所全燒

損害三萬五千餘圓

화재원인은아직불명

【新義州】 지난십삼일오후십일시 이십분경부터신의주부 반정(濱町)일번지에잇는전기흠(全基欽)송관철(宋寬哲)량씨가 경영하는 의창제재소(義昌製材所) 작업실에서 출화하야 불과 수사간에 건평 삼백오십여평에 달하는 건축물과 그안에싸엿든 재목전부가 전소되엿나 발화원인은 아직미상이나 밤구시반까지밤일을 하엿슴으로 전긔가루전된것이안이면 종업원의 부주의로실화된것이안인가추측된다하며손해는 대략삼만오천원가량되리라는바화재보험은대판해상(大阪海上)화재보험회사에 천원밧게가입한것이업다한다 제재소인만큼목재가엽하게되여출화즉시로 화광이충천하며 화세는맹렬하야일시는대혼잡을일우엇스나 다행이 천긔가순하야다른곳에는 연소되지안엇다 신의주소방조안동현 소방조경관수비대까지 총출동으로 활동하야 십사일 오전두시경에야 거이진화되엿다 그날밤야경하든 최모(崔某)등수명은 즉시신의주서에소환되엿다한다

富豪를相對한 疑問의怪告訴

리면에수수꺽기가만허

策動嫌疑者引致取調

수십만장자를 에워싸고 녀자의 정조를 미끼로 돈을빼아스려고 하야 일측이천하의 엽기사건리수락(李洙倬)사건의 일방의참모겨으로서 예심에 삼년이나걸려잇든 레의조인옥(曹寅玉)외 수명이 결탁하야 전기부호를상간죄로 고소하엿다가 도로혀공갈한 혐의로 일당사명중삼명이 검거된 사건이잇다 시내체부동(體府洞)일백칠십팔번지의일호에 사는 평택(平澤)의부호박용화(朴容和)를 거러서 얼마전에 바로그엽집인일백칠십팔번지의 이호 조인옥의 집행랑에잇는 조성녀(趙姓女)의남편최모가종로서에강간죄로 고소하엿는데 그내용인즉 어느날밤아홉시경에최모가그의취직처인 평양부(平壤府)에가고 업는틈에 박용화가 행낭방에 침입하야 조성녀를 강간햇다는것이다그서에서는 취조한결과 고소의내용은 거짓꾸민듯한 흔적이농후하고 도한고소하기전에 영정정(櫻井町)모변호사를통하야 화해하자는 교섭도잇고전후사정으로미루어서 전기조인옥과 조성녀의 수양오라버니라는 김준칠(金俊七)최상옥(崔尙玉)등이공모하고 박용화의 돈을먹으려고한혐의가농후하야십사일 오후에 진풍신뢰적으로 조인옥 김준칠、조성녀삼녀을 구치하고 영정(永井)사법주임의손으로엄중취조중인데 최상옥은 벌서이 기미를알고 어대로 모양을감추엇다고한다

滿洲國攪亂目標는 鐵血救國團

지식계급에책동은일파

奉天憲兵隊서檢擧

【奉天十四日發】 북평구국회(北平救國會)는작년칠월이래 간부를 만주국에잠입식히고 봉천, 할빈(哈爾濱), 장하(莊河), 삼개소에 철혈구국단총부(鐵血救國總部)를두고 만주국내 지식계급에 잠행운동을 개시하야 만주국교란을 계획하고잇섯는데 봉천헌병대는 지난이월이십팔일그들을 검거를개시하고 한자(漢字)신문기자강도(江濤)도박문(陶博文) 숙명선(肅明先)외이명을 체포하고 삼월이십팔일이래기사게재를금지하고 봉천지방법원으로 이송 취조중이든사건은 금일(십사일) 해금되얏다 그동안취조한결과 일단은지난삼월일일의만주국황제어즉위식을목표로반만항일격문을산포한것을위시하야각지교육관이며 만주의신문등에 책동하야지식계급획득을도모하든것이 판명되엿다

仁川府에서 兒童營養週間

【仁川】 인천부에서는오는십오일부터약일주간아동을위하야아동영양 강연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연사와장소시일은 다음과갓다한다

十五日午後一時半 寺町小學校
十六日 同 柳峴小學校
十九日午後一時半 博文校
以上仁川道立病院長 稻田宣易氏
十五日午後一時半 博文校
京城帝大醫師 朴秉來氏
十六日 同 永化男女學校
婦人醫院 郭順婷氏
十七日午後二時 內里禮拜堂

八十二歲老婆 汽車에轢死

【新浦】 지난십삼일오전열시 삼십오분 오백삼번북행렬차(五○三番北行列車)가 당지후구덩(후미끼리)을 통과할지음에 신포예소교회(新浦耶蘇敎會)의목사황하운(黃河雲)씨의모친팔십이세된로인이 불행이도 그곳을 지나다가 긔차에깔려 참혹한죽엄을일우엇다고한다

中學部籠球聯盟戰第六日

悲壯한追擊戰 한點差로一高敗

靑學、培材、大東、徽文各勝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八回籠球聯盟戰第六日은 十四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鍾路基督敎靑年會體育館에서行한바 第一次로 大東對公民戰은 大東의 [원사이드]게임으로公民大敗하엿고、培材對二高戰은 培材軍午에리-드하엿나가後半에드러가 二高猛烈히追及하야形勢逆轉하엿스나 前半의大差로二高물러가고뒤니어一高對靑學戰은一高前半에 意外로不振하야靑學에게 리-드를당하엿다가後半에 悲壯한追擊戰을演하드니一點差로 一高앗가웁게敗하엿다 第四次로 徽文對東星戰은徽文壓倒的 優勢로大勝하엿다

【第一次】 大東56 (20 39 / 11 0) 11公民 大東對公民戰은同六時三十分부터 金熙秀、金化泳兩氏審判아래開始되다 結局五六對一一로 大東勝(게임三十分間)

反	得	【公民】		【大東】	得	反
1	2	[illegible]	F	金仁濬	9	0
			F	王玉伊	2	0
0	8	林[illegible]	F	黃永[illegible]	10	0
			F	金[illegible]	10	0
0	0	金[illegible]	C	朴承俊	8	0
0	0	[illegible]	G	金[illegible]	7	0
2	1	金[illegible]	G	申[illegible]	2	1
0	0	張完石	G	[illegible]	6	0
			G	[illegible]	3	0
3	11				56	1

【第二次】 培材27 (8 19 / 18 4) 22二高 培材對二高戰은同七時二十分부터 張權、李惠溥兩氏審判아래開始되바 結局二七對二二로培材勝

反	得	【二高】		【培材】	得	反
2	4	金善[illegible]	F	金東源	7	3
1	2	尹子[illegible]	F	李用俊	0	0
			F	金[illegible]	6	4
			F	成瑞奎	2	1
0	0	李[illegible]	C	李相再	3	4
1	5	鄭容淳	C			
1	8	[illegible]	G	韓[illegible]	4	1
3	3	成樂[illegible]	G	李錫一	5	2
8	22				27	15

【第三次】 靑學27 (9 18 / 18 8) 26一高 一高對靑學戰은同七時十六分부터 宋公宇、金振秀兩氏審判아래開始되바 結局二七對二六으로靑學勝

反	得	【靑學】		【一高】	得	反
3	1	金昌[illegible]	F	安[illegible]	4	0
			F	宋[illegible]	0	0
3	1	崔志善	F	趙昌九	3	0
14	0	潘成甲	C	金[illegible]	6	3
2	0	張博	G	崔[illegible]	3	0
2	3	[illegible]	G			
4	0	李[illegible]	G	韓[illegible]	10	0
27	5				26	3

【第四次】 徽文59 (32 27 / 11 6) 17東星 徽文對東星戰은同九時九分부터 李惠溥、閔泳[illegible]兩氏審判아래開始되바 結局五九對一七로 徽文勝

反	得	【東星】		【徽文】	得	反
1	6	宋[illegible]	F	文泳夏	10	0
			F	玄日東	0	1
1	4	全春根	F	崔正武	11	2
2	5	崔宗奎	C	金容武	23	0
4	2	[illegible]	G	金[illegible]	11	2
1	0	尹浩榮	G	[illegible]	4	0
1	0	金永化	G			
10	17				59	7

今日의運動

◇籠球聯盟戰第七日=靑商…中[illegible] 東…一高 …京實 東星…普正 電擬…大東 (以上午後六時半부터鍾路YMCA서)

金浩石、總司令就任 再建工作에猛活動

南京方面서資金調達하는中

滿洲、朝鮮○○軍消息

【奉天】 당지모긔관착정보= 동변도일대에 근거를두고 맹렬한활동을 개시하고잇던 조선××군은 저번총사령량서봉(梁瑞鳳)이가 암살되고 또일만군의 동변도토벌로 말미암아 중요간부가 혹은체포되고 혹은도망하야 일시조직이동요된 상태에빠저잇던중 최근동××군 김호석(金浩石)이가 후임총사령으로 취임하고 동시에 재건운동을맹렬히하고잇다는바 이제 최근의 상황을종합하면다음과갓다한다

一、目下××軍의財政이窮乏하야 그打開策으로 今番同軍自治部長 金東山을 去月末南京方面에 密派하엿다고한다

二、最近 張學良一派와連絡하야 將來 軍資金에對한相當額의援助와 積極的革命工作의支援을 밧게되여 爲先第一着手로서 通化、輯安縣境方面에 內容充實한軍官學校設立을 計畫中이라고하다

三、隊員補充을 目的으로하야 東邊道一帶에 在住한二十才以上 三十才 以下의 男子를强制로採用하고잇다한다

四、國民政府와呼應하야 一般朝鮮人에게 精神涵養에專力하며時히 最近에는時局이複雜한이때에一般民衆에게告함이라고印刷한宣傳文을 各地에撒布하얏다는등선전하야공작을유리하게하려고맹활동중에잇다한다

土兵의脅迫狀

평북자성경찰서(慈城署)관하상구배주재소(上仇俳駐在所)의대안즙안현삼도구(輯安縣三道溝)에 동북인민군(이백여명의 일단)과마적구주(九州)의 일단으로부터 그곳총무회장에게로 겨울옷 오백벌과 기타다액의식료품을 제공하라는 협박문을이달 십일일이래 세차례나 보내왓기 때문에 그곳주민은 극도로공포하야 십삼일까지에 만주인팔십칠명의 다수가 상구배주재소에 피란하엿다 자성경찰서 에서는 경계원을 더파송하야 엄중히경계중이다

討伐隊歸還後에 ○○軍再次出現

興京縣北方一帶의部落에서

村民은縣城으로避難

【奉天十四日發聯合】 동변도(東邊道)의토벙토벌을마치고일본군주력부대가 도라오자 흥경(興京)북방일대에조선공산군이 출동하야 그근방촌민은작구현성(縣城)으로피란하고잇는데흥경 경찰분서에서는 봉천으로부터응원을어더 그들을 토벌하기로되엿다

葦子溝에共軍 十名이被擊

【龍井間島十四日發】 위자구(葦子溝)경찰분서에서는삼도양구(三道陽溝)의만주국인 왕모(王某)의집에 무장한 공산당이 잠입한것을 탐지하고 십삼일아침서원이 출동하야 체포하려고 하자 공산군은맹렬히 응전하야 쌍방이 교화한결과 공산군편의 두명을 사살하고무기와 탄약을 압수하엿다 그런데동야열한시경에토병과공산군의혼합병수십명이위자구를습격하고시가지에맹렬히포격하므로 일만군경에는 즉시응전하야 십여명을사살 격퇴하엿는데 일만군경측에는 손해가업섯다

金塊密輸事件擴大 平壤서六名押來

密輸出總額은百萬圓假量

本町署서徹夜取調

금괴밀수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잡아가지고 급작히 평양(平壤)에출동하엿든 본정서형사곡박(谷迫)부장등 오명은 전금녀(田錦女)등 여자세명과 전희록(田希錄)외아명 모다 륙명을검거해가지고 십사일방차로 도라왓다 이는방금 그서에서 검거취조중인 금괴밀수사건과는 별개의것으로서 역시경성에서 금괴를사가지고는 가공하야 부녀들의손을 거처서안동현(安東縣)방면으로 밀수출한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밀수액이 백만원이상에달한다고한다

郭正淳君渡米送別音樂會

日時 十一月十六日(金)午後七時半
場所 市內長谷川町公會堂
入場料 壹圓、五十錢、學生參拾錢

樂士 郭正淳、曹恩卿、李宥善、韓福德、金永義 金福實、玄濟明氏指揮 延專絃樂團
主催 延禧專門學校同門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直時酬應 西洋生菓子 本町 金剛山 電本 四二四五

가난이犯罪! 父母가굼는다는 便紙밧고竊盜질

【元山】 가난은 사람의 마음까지 악하게하나니 굶주린부모를 구하고저 주인집물건을훔처다가 경찰서류치장의 랭방에서 떨고잇는 가엾은소녀이잇다 그는강원도 이천군학봉면 로동리(伊川郡鶴峰面魯東里) 백봉한(白鳳翰)(六)으로 금년 시월상순 전긔고향을떠나 원산에와서 이곳저곳으로 직장을차저 헤매이다가 원산역전 모양복점에양복견습직공으로 들어가게 되엿섯다 는데 이취직 하엿다는 소식이 멀리고향에 전하게되자 가족들로부터 방금아사 선상에 직하면고잇스니빨리돈을보내라는 따한편지를 밧고고향에잇는 가족들의 굼고잇는 참혹한정경이 눈압해어리워 양복점에잇는 양복세벌을 훔쳐팔기로 작정하고 자과하숙에 숨겨두엇다가결국주인에게 들키워 검거된것이라한다

ベルツ博士와 ベルツ丸

光輝잇는ベルツ博士의功績

ベルツ博士는 明治九年本邦政府의招聘으로 獨逸서來朝東大敎授를비롯하야 幾多의榮職에잇서고光輝잇는功績을남기엿소 特히在非卅年의 結晶으로서 數種의良藥을完成하엿소。이것이 永遠不滅의우리醫界에燦然한名藥이엿소。

梅毒은一日이라도빨리 血液을淨化하시라

安心못할內攻과續發症

健康의時期

年가을은、끔찍한雨天이만코、氣溫은顯著히低下하며濕氣가만흠으로、여러가지病人이續出하게되얏소。特히이天候不順으로、意外에多數인것이梅毒에욕보는患者이오平常時滿足한治療도못하고、放任하야둔분은、이런濕氣가만흠時必然的으로發病을바든것입니다。梅毒菌이라한것은、最初中에는感染한場所와淋巴腺管에潜在하야잇스나、좀잇스면血液內에浸入하오、그러고第二期症狀에옴기여감니다그런대그도지내직、이번에는內攻하야서、臟라든지、脊髓라든지脾、膵、卵細胞等도、天候不順할時를엿보와서猖獗하고微細한徽菌이나

그毒素는 무섭게도人間五體를꺽구러트리여、精神病者도맨들고、다시못일어서는廢人도맨듭니다、或은罪업는妻子를울니는等、一徽菌의所爲라고는生覺키지안흔慘酷한것이比할대가업습니다。

그런테이慘酷한梅毒患者가、年年續發되것은、前에도말한바와如히、患者自身이病에無關心으로、僅少한治療로그때만넘기고後日의무서운것도겨정업시生覺하는結果、도리여病菌은더옥더옥內攻하야서、드되여更生할수업는危地에陷入합니다。

徹底的療法 이必要함

勿論、손댈수업는重態인患者는、專門家의充分한治療를바듬거시나、그러나良藥을選擇하야治療하면家庭에서도 容易하고무서운毒素의內攻을보기좃케、全身의毒素를體外에排泄할수가잇습니다

ベルツ丸과

가장가튼것은家庭療法으로는 適當한 驅梅內服藥으로、참으로 梅毒初期부터 晩期의患者에서서有効하도록精製되야서、옛날부터販賣되얏스며 더구나信用잇는內服藥입니다。

梅毒、膿毒、冷毒、濕毒、橫痃、膿梅毒、潛伏梅毒、遺傳梅毒、脊髓痨、梅毒性루마치스、여드름、부름等모-든梅毒性의疾患에苦生한분에는、意外에빨으고조흔成績을얻게됩니다。特히ベルツ丸은

血液淨化 되야淋巴液도更新되고、根氣잇게一個月乃至二個月을服用하면、自然히머리가明晳하야지고、胃腸과小便과共히 體外에排泄되여집니다。永年間體驗한분에서鄭重한謝禮狀을보내오나 이것을가지고보드래도 ベルツ丸이참다운것이고도、優秀한驅梅內服藥임을알것입니다 特히梅毒患者가梅毒스피로헤-타당세、혹全身이衰弱하야잇슴으로

中毒을일으키든 特性이라하야서 藥에지는일이잇스나 ベルツ丸에는 그러한걱정이업습니다。 더욱體驗者의一齊히認證하는바이다 二三個月ベルツ丸을 服用하시고 血液檢查를하야보십시요 血液이淨化되야잇는것은 即全身毒素의 體外에 排出한 證據입니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効能 梅毒、膿毒、淋毒、橫痃、濕毒、冷毒、脊髓痨、驅梅毒、遺傳梅毒、루마치스、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藥價 一圓・二圓・卅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卅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 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滿二
振替東京一○五・電話浪花町八○番九○番

代理店 京城府—木村藥房。新井藥房 釜山府—大黑南海堂。藤田藥舖

慶南道民一人當 負債額四十四圓

總負債九千三百六十八萬餘圓 貸出金首位는銀行

【釜山】 경남도 리재과에서 금융조합은행, 산업, 무진, 동척, 전당포외 금융기관에서와 개인대금업자에게서 차입한 금액과 인원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십월일현재로 이백만도민이구천삼백륙십팔만오천원의빚을지고잇서 한사람에게 四十四원씩 원간바 그중대량대출은 은행대출 수위를 점하야전체의 오할팔부이며 그다음은 금융조합이라는바 대출상황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銀行 本店二 新支店二五 五四、八六三、○七七圓
金組 本所七七 支所一九 一五、八九六、三九一圓
信託 本店一 支店一 四、三九○、八三○圓
無盡 本店五 六五二、九八六圓
東拓 八、六七四、五五○圓
質屋 一五五軒 三一○、一九○圓
個人貸金業 日本人五三六 朝鮮人八四八 九、○九一、九八一圓

飢餓에直面한 細窮民이萬餘名

德源郡下의貧困相

【元山】 함경남도 덕원(德源)지방은수년래의만성적공황에금년의 홍수까지 참담한지경에 잇는자 만타는데 그중세궁민만도 전호수와 상분지일이나 된다고한다 이제 덕원군에서 금년십일일현재로 조사한수자를보면 세민(細民)호수 일천팔백사십사호에 인구 팔천사백륙십칠명 세민에서 참락한궁민(窮民)이칠백사십륙호에 삼천칠백오십삼명이라는바 이상세궁민 총계를보면 호수가이천오백구십호 인구가 일만이천백륙십구인데 다처오는 엄동설한을앞두고 그들의생도가 막연하다고한다

問島共黨關係者 金李兩氏出獄

【咸興】간도공산당사건에련좌되여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함흥형무소에이감되여이래 복역중이던 김형균(金衡鈞)(二七) 리봉남(李鳳南)(二六)의량명은이번 반의형기를 마치고 지난십삼일 ...

釜山署留置場內에서 窃盜容疑者脫走

警察은唐慌搜査中

【釜山】 십삼일오후륙시경부산경찰서 류치장에 구치중인절도혐의자 리석순(李錫純)(二○)은 대소변등소제를하다가 감시원의눈을피하야뒤스문으로도주하야바렷다는데 감시순사와 서원이 즉시추격하엿스나 체포치못하엿든바 이급보를접한 암전(岩田)사법주임은근래에업는중대사건이라하야형사대총출동으로대활동중이나도주범인은오리무중으로 동서에서는 대단야단중이라한다

포리도루專屬 歌手「實演의밤」

【元山】 포리도루전속예술가 총출동으로 십오, 륙량일간 당지원산관에서 천야악기점(天野樂器店)백림당(伯林堂)량우귀점주최와 일본포리도루 조선지점후원으로 개최한다는데 당일에는 원산이나흔 음악에천재의소질을 다분이가진 김룡환(金龍煥)군도출연하리라한다

長興青少年들이 關西風災同情

【長興】 전남장흥군내청소년 ...

大邱某會社重役 不正事實綻露?

警察은方今內査中

【大邱】 대구모회사(某會社)중역두사람은 최근 부정사건이 발로되여 발서경찰에서는 극비밀리에 내사를 개시하얏다는데 그들은 회사의공금으로서 유흥소비한것이라하야 조사가 진전되는대로 근근협의자를 검거할 모양이라한다

金泉食料購買組 不日間開業豫定

【金泉】 김천유지황찬수(黃贊洙)씨외사오인사의 발긔로김천 ... 모다전부의 몸으로 고향인 황북명천(明川)으로귀향하엿다한다

兩校聯合競技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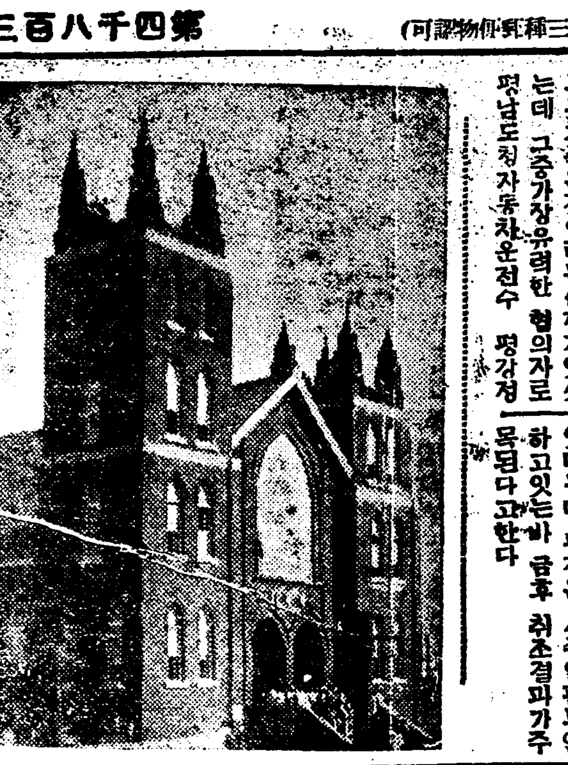
【長湍】 ... 장단공립보통학교(長湍公立普校)와 진남공보교(津南公普校)련합으로 보은제(報恩祭)를예정과가티 지난십삼일오후한시경에 동장교 대강당에서 상대(三先)씨사회로 성대히거행하후 동교생들이 일변간경작한 농산물로 만든 시식회(試食會)도 계속하야개최하얏다고한다

... 조합원의 출자금품이라한은 오는 십오일까지라는데 일반조합원은 긔한내에 불입하기를바란다고한다

監視人轢殺事件 平岡, 豫審에廻附

被告는否認一貫

【平壤】 평양부외당상리(堂上里) 평남선철도감시원 박수복(朴受福)(二三)을치위죽인괴자동차 살인사건에대하야는 그동안가해자 혐의자도 다수히검거되여 취조를밧고 일섭에는 렬차에부딧처죽은것이라는섭까지잇섯는데 그중가장유력한 혐의자로평남도청자동차운전수 평강정길(平岡政吉)(三三)을검거하여취조를마치고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넘기어암성(岩城)차석검사가 련일만흔참고인을 소환취조중이든바 십이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여 예심에회부하엿다는데 평강은 시종일관부인하고잇는바 금후 취조결과가주목된다고한다



三千會衆參集 教堂新築祝賀

【新義州】 신의주일천오백여교인의 성력으로도 만일년의 일자를 허비하야 공사중이든 원주재의교회례배당은 공사가 준공되여 십일일 신축교회당안에서 긔념례배를 거행하얏는데 오전열한시에 정식긔념예배를필하고 오후일곱시부터 『종야의밤』 긔념음악회를 개최한바 부내각교회와 안동현 교회로부터 다수참석하야 회중 ... 일대성황을이루엇다

◇寫眞 ...

音樂研究所員마저 音樂大會開催

本社平壤支局後援 十七日白氏館에서

【平壤】 음악의『싸ー는』가을마지하여 경성음악연구소(音樂研究所)에서는 다년간만흔음악에대한 연구를거듭하며 음악잡자까지 발행하여 빈약한조선음악계에 적지안흔공헌을 나타내고잇든중 금번 제일회로서조선지방에 순회음악의 행각을하기로되엿다 이에 음악사(音樂社)평양지사에서는 동음악단을 마지하여 본사 평양지국후원으로 오는십칠일(토요일)오후칠시반부터 부내백선행 긔념관에서 음악대회를개최키로 되엿는데 당일출연할악사는 사계의일류를 망라한 오인조악단으로서 동경고등음악학원(東京高等音樂學院)출신의천재『비요리니스트』리영세(李永世)군을 비롯하여 동교출신 김진순(金鎭順)양 『소푸라노』동양출신 김해(金海)군 『테ー너』일본출신 김신수(金仁洙)군 『첼노』 연전출신 최성두(崔聖斗)군『피아노』등으로 벌서부터 각방면에서만흔 인긔를 집중하고잇서서대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美華刺繡講習會

▲時日 十一月十六日부터二十二日까지

▲場所 ...

▲會費 一金一圓也

◇主催 ...

▲訂正=本報十三日附第四千八百三十四號 朝刊第三面에記載된鳥致院公立普校敎育展覽會記事中 手藝品一等에當選된刺繡『晩秋風景』의 作者趙淑子는『孟淑子』의誤植이기玆에訂正함

地方人事

▲尹吉重(本報江景支局顧問)一紙工場設置調査次去九日陽村向發

▲村上成三氏(兼二浦警察署高等係主任) 新任人事次 去十日本社兼二浦支局來訪

▲朴熙榮氏 (三和고무株式會社技術部長) 轉任人事次去十二日本報江景支局來訪

▲李相益氏 (元山救世病院副院長) 就任人事次本社元山支局來訪

▲金業乙氏(同院內科醫) 上同

▲李象玉氏(同院外科醫) 上同

暴風前夜【十】

咸大勳 作 金熊超 畵

회상 (1)

「글세 그청년이 누구란말입니가?」

철은 뭇더 자긔나 맷스면하고 이렇게무럿다

「근데 그청년은 나를바롯틀고 배는달수가업스니 그만두고 자긔와 산보를 하자겟지오......」

「그래그청년이......」

「아니좀가만게서요 뭐도 섯질이 급하시네......그래 그청하고 두리서 물결치는 해변을 나란히 가티걷으면서 노래 불럿지요......가티것지안엇겟서요......그노래는 저로시아의시인 푸ー쉬킨의 『루스란파류도미라』라는 시의일절이야요 『짧을가리끈은 해안에 떡갈나무하나! 그떡갈나무우에는 황금의쇠사슬!......』이노래를 불르면서 해변을걸어 안엇겟서요......그남자도 내노래를 따러불르면서 사람업는 해변에 물결소리를 반주삼아 두사람이 한창놀하며 무한히 걸엇지오......그런데 바람은맑고 달은밝아 참으로 자미잇섯서요 가다가 가다가 발을멈첫드니 거긔『클로버ー』가얼마든지잇겟지오」

성희는 무엇에깃붐을늣긴듯이 몸을솟스라치며 갸웃히웃는표정을 지엇다

「이야기가 참조흔데요! 그게참말꿈입니까?」

철은 묵묵히 듯고잇다가 입을뗏나

「꿈이고말고요! 그래그이와 네입새잇는 클로버ー를 찻기로햇서요! 그런데 얼마찻지안어서 두사람이똑가티 네입새 클로버ー를 찻첫지오......이것이아마 행복의 전조인가봐요」

「그런테 그남자가 누구야요?」

철은안타갑다는듯이 물엇다

「그게누구냐하면 ○○이란말야요...호호호」

성희는 이름을알려주지안코안타갑게만든것이 자미잇다는듯이 배스전 한편구퉁이를잡고허리를 굽히면서 깔깔대고우섯다 그때 성희가한편으로기우는때문에 조그마한 보ー트는전복될듯이 한편으로 쏠리엇다

「아! 위험합니다」

철은 소리를 버럭질럿다......

성희는그때 얼른 몸을도리켯다 보ー트는 한참동안이나가 웃뚱그럿다......

「하마트면 목숨에 드렷갈번햇서요......」

성희는 약간 얼골을 붉히고 황망한태도로 말을햇다.

「설마 물에드려간들 제가잇는데 생명이 업서야 지겟습니가만 참 이번엔 위험햇서요......」

「이젠 드러가요!」

성희는 배타고잇기가 무시무시하다는듯이 철을 재축햇나

해는벌서 서편에 기울엇다 자짓빗노을이 구름을통해 피빗으로도 서편 하늘을 물드리고잇다 수연은 잔잔한 물결이 지고 배스전을 때리는가는다란물결은 찰랑찰랑소리를 냇다

철은숙엿든 머리를들고 노를힘잇게 저으면서 말을끄냇다

「그럼 드러갈가요......」그래도 그청년이 누구인지를알어야겟는데요!」

「내잇다말할께 가요 해도저무서워요......」

성희는 웬일인지 맥이업이말을햇다

보ー트는 머리를 돌려 한강상류에서 다시 밋그러저나려 오기시작햇다......

벌서강에는 보ー트의그림자가 몃개 낫지안엇것만 모래사장에는 아즉도 어린애들이 떠들고잇다! 저녁고요한바람을실고 흰돗을단 어선하나이한가히떠올라온다

멀니 철교우호로는 인천행긔차가 『쿠쿠치치』하며 연긔를토하면서 다라나고잇다

철과 성희는 보ー트에서나려인도교엽헤잇는 카페겸식당가튼 서양요리집으로드러갓다

문을열고드러스자 엡뿌장한일본여급하나이 『이랏샤이마세』하고 간드러지게 허리를굽히면서

「이층이 비엿습니다 올라가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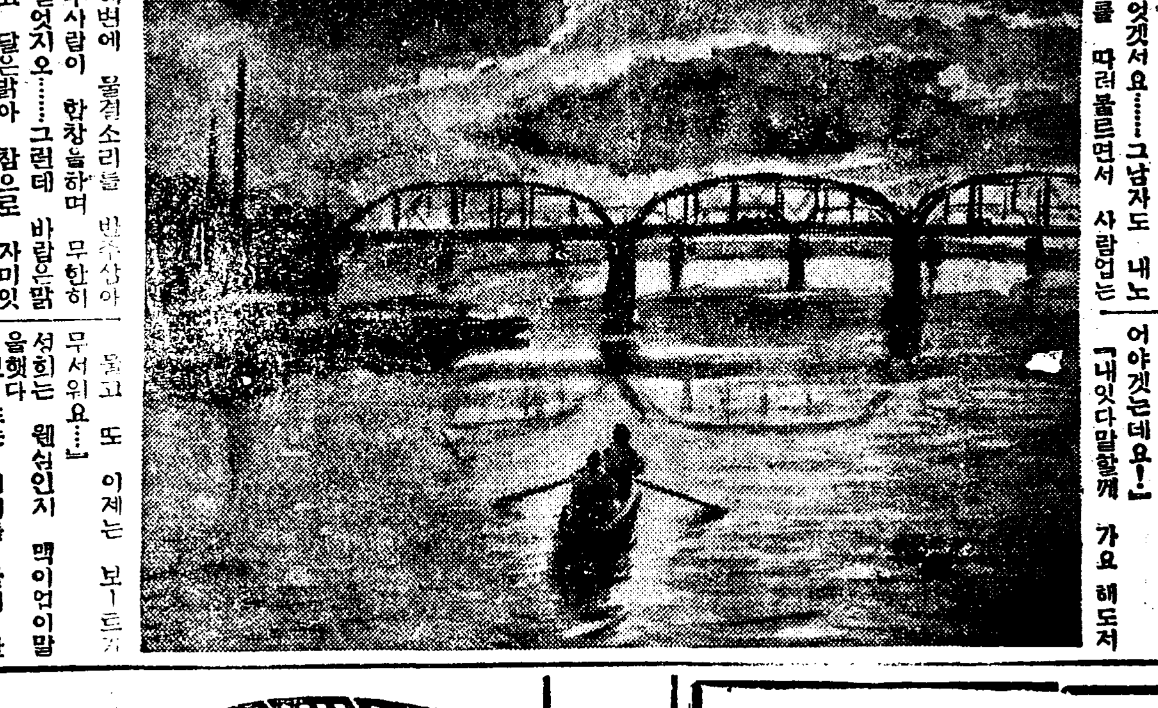
하고철과성희를안내하엿다

「이방으로 드러오시지요」

녀급은 이층의 제께끗히 꾸민조방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방석을 두개책상에 마조안게노아주고는 무릅을꿀코안는다 순간의 침묵이 흘럿다 그러자 녀급은

「뭘을가저올가요?」

하고이침묵을 깨치고 싹싹히 미소를띄우면서 남자편을바라보앗다



가을속에서 美와幸福이 빵긋웃습니다

나의靑春을 躍動식히는 클라부의化粧

クラブクリーム白粉

(구라부크림)

모던인 튜ー브入 白色·肌色·淺肌色

外出前에 旅行地에 沐浴後에

一二分間에 되는 스피드化粧

新女性의 愛用品인 크림白粉

●天下의料理業諸位여! 惡醉한손님에게 ノーシン(노ー신)을●

新興キネマ·高田プロ合同超大作オールサウンド版

"世紀の青空"

牛原虛彥作品 高田稔 主演 山縣直代 霧立のぼる 高倉惠英子 共演

近日封切

山縣 아! 霧立氏오날은참깨끗합니다그려, 당신으로서는참드믄일입니다。저터때가되면꼭안개가찝니다。안개피여나는가을황혼이랍니다。

霧立 아! 直代氏, 安堵하시오, 당신도大端입심이세졋습니다그려, 昨夜, 座談會가잇서서늦게되야, 睡眠不足이되엿서도, 그것은用意周到한것입니다。언제나, 이것을먹고, 美容을당부攝取되엿슴으로全身體를無理하야도平然합니다。

高田 무엇을잡수시오, 엇던것, 뵈이세요아錠劑「サロミン」이란藥이던霧立氏보다나쪽이제신론저부터의愛用者입니다。昨年, 내가病으로入院하엿슬時, 醫師의推薦을바다서以來服用하야서相當히오래되얏습니다。「雨の上の太陽」을撮影할時도늘먹엇서요。

나는飯食後나撮影中에는疲勞가甚할時에五六錠式먹고잇스나, 胃腸의効果가잇는것은確實하엿서요, 以前과갓치食慾이不振되지안코, 消化不良은아조解消되얏습니다。

그런데, 이새이는酒精消毒그만두고「錠劑サロミン」한아로胃腸病와榮養補給하고잇습니다만은

映畵界라도이새에는大端히맛고잇는듯하나婦人들의冷病貧血等에는貴重한藥이랍니다

山縣 아ー이藥이그러케効力이잇는가그러면나도滋하시사서좀더살찌게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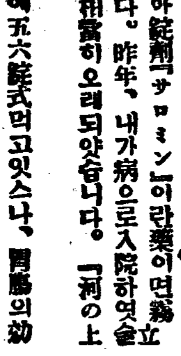
試用醫藥明書進呈 (住所氏名記入) 申込所 ...

山縣直代 霧立のぼる 高田稔

錠劑 サロミン (사로민) 胃腸病·虛弱體

錠劑サロミン은胃腸病者와身體虛弱者에게特殊한効果를가지엿슴으로最近에는全身健康의保證으로서映畵界, 스포ー스界或은事業家의새이에愛用者가激增하게되오. 効果의確實한것은勿論美味佳良으로服用하기쉽고, 牛乳와네모네이드로도마음대로먹을수가잇소. 藥價는約十日分五十五錢約一個月分一圓五十錢으로어느藥店에나販賣합니다.

東京商事株式會社藥品部



新舞臺

本社直屬劇團新舞臺 十一日밤부터沙里院旭座에서公演 十四日밤부터開城에서公演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三日間) 沙里院旭座에서公演

十四日밤브터 開城에서公演

從來의習慣인公演初日入場或은自動車로써俳優一同의町廻는絶對廢止합니다

乞期待! 本社新築落成記念興行 十二月上旬豫定

團成社 電話光九五九

櫻井町 本局金 大正館

十一月十五日より特別封切公開

映畵シーズンの話題 大都映畵社特作 時代劇 傑作名畵週間

原案河合德三郎 勝見正義、本格監督作品 阿部九州男、佐久間妙子主演

任俠悲戀史 伊達姿辨慶格子 澤田敏之助 松村光夫 大和玉枝 共演

憧れの美姬待望のニーヴェイ第二回作品 情緒と音樂と交響詩篇 名篇 女人禁制 獨逸ウファ超特作ら第一回日本版 アナトル·リトバク監督作品 リリアン·ハーヴェイ嬢主演

女人禁制

ロイド·キートン·... マルクスも顏負けさて淺草切つての笑ひの名物男エノケンの銀幕初登場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 P·C·L脚本部 エノケン文藝部合作 監督山本嘉次郎 撮影唐澤弘光

エノケンの 青春醉虎傳

淺草隨一の名物男榎本健一主演 映畵二村定一、大川平八郎、堤眞佐子、藤原釜足、森野鍛冶、千葉早智子

鎭南浦紹介版

三十年前小漁村 一躍三大港의一

無量한今昔의感 地方版을發行하면서

鎭南浦支局長 安尙燁

鎭南浦는 平安南道 西南端에位하여 東, 西, 北은丘陵을負하고 龍岡郡에接하엿스며 南은 大同江을隔하여 黃海道와 相對하엿는데 自今三十餘年前에는 甑南浦라稱하여 人煙稀疎의荒寥한一漁村에不過하든바 開港以來飛躍的發展을보게되어 朝鮮三大貿易港의하나요 西朝鮮三道의 物資의呑吐港으로 當港의貿易은連年躍進하고잇다 그뿐아니라 日本內地와滿洲, 上海等地는勿論 멀리歐米市場에서까지好評을밧고잇는 年産三百萬圓을 産出하는苹果의王國으로 世界的産業發展航道上에서 疾走하고잇다

此際本支局에서는 勇進하고잇는鎭南浦發展上一助가될가하여 勇敢히 鎭南浦紹介版을發行키로되엿다 大體地方을紹介함은 一地方의 過去와現在의一般情勢를詳細히 滿天下讀者여러분에게 一目瞭然하게 紹介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制限된紙面關係와 여러가지 事情으로不充分하게도 一部分만 紹介하게된것을 못내 아감으로 생각하는바이다 끗흐로 鎭南浦發展의 重大責任을가지신 人士諸位는一層 適宜活躍하기를 바래는同時에 今番紹介版發行에 對하여直接 間接으로多大한後援과聲援을 加하여주신 諸位에게 衷心으로紙面을 通하여謝禮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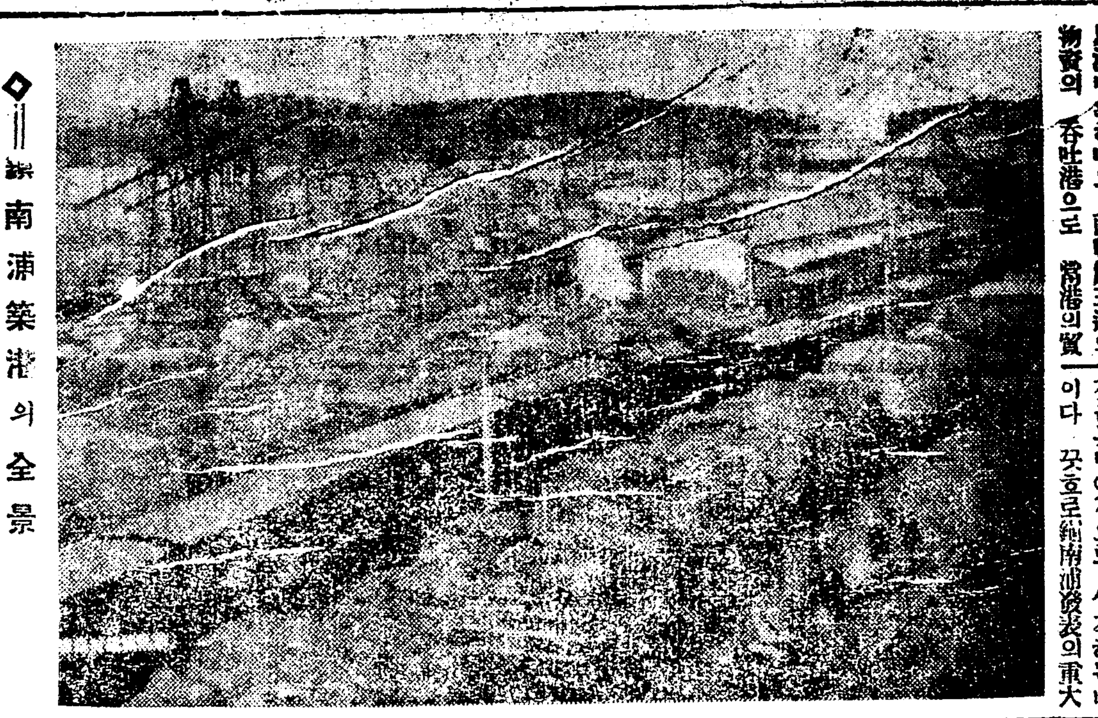
◇沿革◇

距今四十餘年前當時의 鎭南浦는韓國三和縣에屬하여 甑南浦라稱하엿는데 人煙이稀薄하여 現在市街地는一帶의 干潟地엿다 明治二十七年五月日淸戰爭以後人口는 漸次增加하여明治三十年十月에 開港되엿는데當時韓國政府에서는 開港場을取締키爲하여 三和郡廳을移來하고 監理署라고하엿다가 其後三和府라고改稱하엿다 明治三十七年 日露戰爭이始作될時當港을軍港으로하여 軍用船八十餘艘가一時에江上에 碇泊한일까지잇섯다 此時는一層各地에서商人들과其他居住民이增加하엿스며 明治四十三年八月日韓合倂하면서는 三和府를廢止하고鎭南浦라 改稱하엿는데 現在人口四萬五千을 突破하엿고 貿易額八千萬圓을超過하여 生産品의 年産額一億數千萬圓에 …躍進하는西鮮唯一의 貿易産業都市로名聲이놉다

◇地勢◇

鎭南浦港은 平安南道 西南端에잇서서 東北에는 平安南北道의廣漠한 産業地帶가잇고南에는江西一帶의 大同江을隔하여 黃海의沃野를 臨하며 西로는 黃海를隔하여 大連, 天津, 靑島와 相對하엿스며 山岳을互相對峙하여 自然의防波堤를形成하엿나 朝鮮의第二都市平壤과는陸路五五粁에 不過하며 附近에는年産 一億四五萬斤을産出하는天然鹽田廣梁灣과名勝의龍岡溫泉이잇스며 水路大同江을溯航하기十七浬의地點에는兼二浦가잇고다시十二浬를遡航하면 無煙炭積出場인保山이잇다 周圍郡外一帶에는 鎭平쎔의自慢的特産品苹果의果樹園으로包圍되여잇다

◇―鎭南浦商工會議所와 會頭李鍾燮氏



◇―鎭南浦築港의全景

西海岸唯一의 貿易港인鎭南浦

鎭南浦府尹 朝倉昇氏談

朝鮮三大貿易港의하나인鎭南浦港은 人口가四萬五千餘人이요 貿易額이 九千三十八萬七千圓에達하여 創立當時를 回顧하면 實로隔世의感이잇나 現下鎭南浦는 米穀의都市이며 同時에苹果都市이며 特히鑛山工業品의貿易으로 嶄然히角頭를表하여 昭和四年以來先進港仁川을後驅하고잇다 當港의長足的發展의趨勢에順應하여 第二次 築港擴張工事를進行中인데 現在의設備로서는 三千噸級의船舶을가로대일수잇고 岩壁荷役能力十萬噸, 水深最干潮時六米밧게안되나 故로現在의築港은 西朝鮮三道의經濟發展上 現勢를目標로施設되엿슴이니만치不遠한將來의 第三期大擴張計劃을要하게될것이다 鎭南浦는東亞부로가經濟의進展과가티 經濟上重大한地位를點할것이다 ◇寫眞은朝倉氏

◇―鎭南浦果物興業株式會社舍屋

各界重要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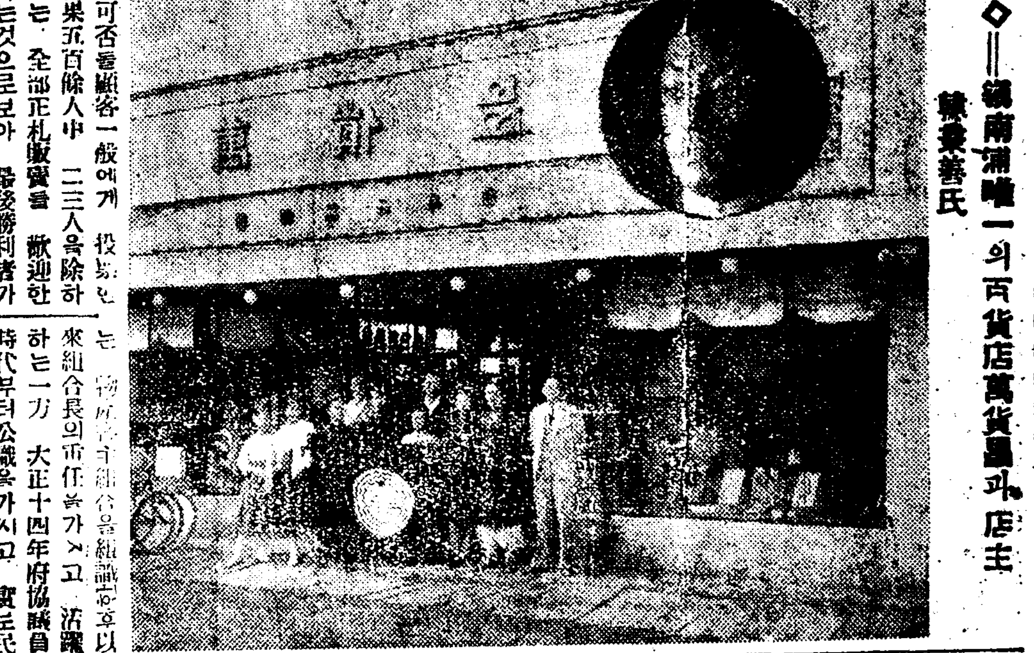
南浦發展功勞者

商工會議所會頭 李鍾燮氏

氏는黃海道黃州出生으로 일즉이 黃州郡靑龍面長으로奉職하다가 明治四十一年부터 當地에와서 穀物界에投身하여以來二十餘年間이나 穀物界에서活躍中인데 氏의德望과 信望은漸漸世間에알려지게되여 大正十二年에 當地倉庫株式會社取締役과 府協議員이며 商工會議所會頭로 當選되엿다가 昭和五年에會頭로被任되엿고 昨年度에 民選道會議員으로當選되여 鎭南浦發展을爲하여 猛活躍을하는中이며 氏의事業으로는大正十四年부터 大規模의三成精米所를 經營하고잇는데 後浦里에約三千餘坪의 工場을建設하고 二百五十馬力의 蒸氣關과 一엔제式 精米機八臺를 設備하고 男女職工 三百餘名을使用하여 一晝夜에 七八百石의 生産能力을 가지고잇다 會議所로는 頭腦가明晳한城野理事와 兩本書記가잇스며 人物들이잇서서 一府業務를經理하고잇스며 商業으로는 金炯坤氏외李南燮氏가는 人物들이잇서서 長足의 發展을보고잇는바 氏는公私間圓滿主義一貫의 人物로將來가매우囑望된다

唯一의百貨店 萬貨昌 韓秉善氏

距今二十餘年前氏가二十歲의靑年으로뜻한바잇서 米洲에건너가서 十餘年間在留하면서貯蓄에努力하는一方 從來商業에從事키로決心하고 米國簡易商業學校에서 二年間修業한후 鄕里에還鄕하여 當地에朝鮮人側으로는 百貨店이업슴을遺憾으로 思하고 昭和二年에 始作하엿는데 商店의建坪이百有餘坪으로 商品이豐積하엿고 陳列方式이現代式이니만치 店內에들어가면 氣分이 相快하며 男女十餘名店員들의써비스는 顧客을 恍惚케한다 氏는商業의骨子인 仕入宣傳販賣 三大要素에 着하여 消費大衆에게必要한物品 最廉價로仕入코저 一年二三次式 産地에出張하야 仕入하여노코 各樣各色으로宣傳하고 販賣하는것인데 萬貨昌의特徵은 信用第一主義로 創業初부터 一貫하여 定價販賣主義를實踐하여왓는바 처음에는在來習慣上困難한點도 不少하엿스나 에누리안이하면不親切하다는 惡評까지밧엇스나 今夏의正札販賣와 에누리販賣의可否를顧客一般에게 投票한結果五百餘人中 二三人을除하고는 全部正札販賣를 歡迎한다는것으로보아 最後勝利者가 되엿스며 또한가지는店員全體가 四國語에能通되여잇는데 氏는英語 氏의父親은中國語에能通하여 西洋人顧客을 無難히맛고잇다 (◇寫眞은韓秉善氏와그의商店)



◇―鎭南浦唯一의百貨店萬貨昌과 店主韓秉善氏

文盲退治先驅者

府會議員 趙定鎬氏

氏는本是京城出生으로 舊韓國時代의軍部에多年奉職하엿고 其後敎育界에從事하다가 自今二十餘年前當地에와서 實業界에從事하면서 鎭南浦는將來發展될것을 先覺한氏는 物産組合을組織하고 以來組合長의重任을가지고 活躍하는一方 大正十四年府協議員時代부터公職으로서의 特殊한功績을 發揮하고잇서서 府都의人氣를 集中하고잇스며 氏는貧民村이라고하든 億兩機里에居住하면서 住民들의衛生思想이 薄弱함을可惜히생각하여 自治團體를組織하여가지고 府에서補助를어더 自治淸潔制度를實行하고잇는 一方無産兒童을爲하여 夜學講習所를設立하고 文盲退治運動에熱中하고잇는鎭南浦의[illegible]人物이다

敎育機關

鎭南浦의敎育機關은 中等學校로는 公立商工學校와高等女學校가잇고 初等學校로는 尋常小學校와鎭井加藤 兩公普校가잇고 私立으로는 監理敎會의經營인三崇普通學校와 長老派의經營인得信學校가잇고 天主敎의經營인海星學校와 新南浦에 無産兒童敎育機關인 英見學院이잇는데 三崇學校는現校長張[illegible]氏가赴任以來 大活動을하여 普通學校로 昇格시킨후方今五萬圓의財團法人을 完成코저活動中이며 幼稚園으로는 碑石, 三崇, 得信, 保聖, [illegible]幼稚園이잇는데 全鎭南浦의敎育機關과 生徒數는 昭和九年五月末 現在生徒數와 經費는如左하다

名稱	生徒數	經費
公立商工學校	[illegible]	[illegible]
公立高等女學校	[illegible]	[illegible]
尋常小學校	[illegible]	[illegible]
鎭井公普校	[illegible]	[illegible]
加藤公普校	[illegible]	[illegible]
三崇普校	[illegible]	[illegible]
得信學校	[illegible]	[illegible]
海星學校	[illegible]	[illegible]
三崇幼稚園	[illegible]	[illegible]
得信幼稚園	[illegible]	[illegible]
碑石幼稚園	[illegible]	[illegible]
德昌幼稚園	[illegible]	[illegible]
保聖幼稚園	[illegible]	[illegible]

特産과名勝

苹果

苹果의都市鎭南浦는 土質로나 氣候로나 苹果에 適하야 어느方面으로든지 苹果栽培의 最適한곳으로 明治三十六年頃부터 栽培에着手하여 當初는多少의受難時代도잇섯스나 近年에와서는 栽培技術이相當히發達되여 年年히 經營者가 增加되는傾向으로 年産三百萬圓을突破하는데 昭和八年五月末現在經營者數가 千四百九十七名이요 總面積이 千四十六町步이며 總本數가 二十八萬四千五百三十七本에 達하엿고 苹果外에 梨, 桃, 櫻桃, 葡萄等도 相當히産出되고잇는바 販路의開拓과 資金融通, 原料의 共同購入等을爲하여는 果物興業株式會社와 産業組合가튼 機關이잇서 活躍을하고잇스며 輸移出品에對하여는 昭和四年七月二日附道令으로苹果檢査所가設置되여 嚴重한檢査를 行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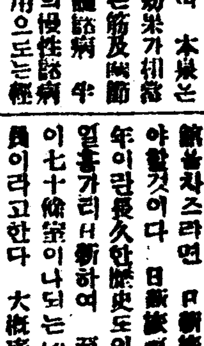
龍岡溫泉

平安南道의 자랑거리인龍岡溫泉은 府外西北으로 約六里되는龍岡郡海雲面에잇는데 附近一帶는 廣濶한平野로 西便은黃海에直面하여 空氣가淸明함으로 四季를通하여 遊覽客이連絡不絕하는데 當溫泉은 距今約三百年前에 發見되여 一日湧水量이 二千二百餘石이요 鑛泉溫度가 攝氏十五度인데 專門家들의分析한結果 炭酸나트리움一二、五八七七三 炭酸카리움一、四八二八〇 칼시움三、五〇七九四 마그네시아〇、二七八二〇 쿠로루칼리움三、八五一二〇 硫酸마그네시아七、三四七八〇 硅酸〇、一〇四七〇 酸化鐵〇、五六〇〇〇 리지움〇、〇二〇(定量分析의數字는 鑛泉千分中의含有量을示함) 以上試驗成績에依하여 本泉은 豐大溫泉으로 醫治効果가相當히有한데 浴用으로는筋及關節僂麻質斯病一切 脊髓諸病 半身不隨 婦人生殖器의慢性諸病 皮膚病一切이며 內用으로는輕症胃腸病一切等의 特効가有하여 浴客이不絕하며 現今共同浴場一個所는 設備가完全하며 旅館도十餘戶나되여 各各自湯設備가淸潔하게되여잇서 浴客에게便利를圖하고잇스며 鎭南浦와 廣梁灣驛에서一日四五次의 自動車定期運轉이잇서서 交通이甚히便利한데 海雲面長金泰熊氏와 溫泉組合長吳在鍊氏의 努力으로 [illegible]大發展을期하는中 來年度에는 [illegible]까지 [illegible]되엿스므로 第一府[illegible]

溫泉의자랑 日◇新◇旅◇館

龍岡溫泉으로 萬病治浴으로자랑하고잇는龍岡溫泉을차저 一流旅館을차즈려면 日新旅館을차저야할것이다 日新旅館은二十餘年이란長久한歷史도잇스려니와 家屋을가리H新하여 至今은客室이七十餘室이나되는데 四時滿員이라고한다 大槪旅館마다自家湯이有하나 이旅館의 自家湯은水源이溫內에잇서서直接湧出하는湯을쓰게됨으로 가장効力이만타고한다 뿐만아니라旅館이淸潔하며親切하고 主人吳在鍊氏는 當年三十八歲의頭腦가 明晳하고社交에敏活한 靑年有志로서 溫泉組合長으로溫泉의 發展을爲하여不斷의 努力을하고잇다

頭腦가明晳한 府會議員 金秉根氏



龍岡郡龍月面出生으로 일즉이官界에投身하여 多年間從事하다가 現今司法代書業을하고잇는데 今年에府會議員補選에出馬하여 當選된 靑年府會議員으로 頭腦가明晳하고 社交에敏活하여 斯界의名望이놉흐며 商工會議所評議員과 南浦金融組合監事役으로 活動을하고잇다

信用一貫主義 貿易界王 高應三氏

鎭南浦에서 穀物界에從事하는人物이 數多하나 成功한人物을말하자면 누구나異口同聲으로高應三氏를 말할것이다 氏는平南順川郡多美面出生으로 本是貧困한 家庭에서生長하여 八年風霜을다격거오면서도 萬事에信用과 正直을目標로突進한結果 氏의 信望은날노놉하 數年內一躍大貿易商으로 全朝鮮을通하여 名聲이놉게되엿다 投機事業이라고할 穀物界에從事하는이는大部分一攫千金을 꿈꾸다가失敗하는數가 多하나 氏는 如何한時期든지 正直, 信用一貫主義엿기때문에 今日의成功을보게된것이다 現在忠南 大浩鎭에 支店을두고 店員五六人이잇서서 實로穀物貿易界의 王座를占하고잇다

唯一의産業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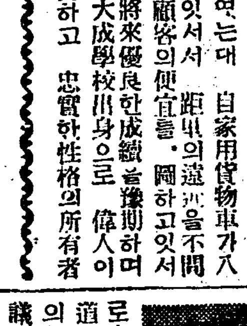
鎭南浦果物興業會社

金志侃 朴璇齊 兩氏의努力結晶

年産三百萬圓을 産出하는鎭南浦의販路開拓과 果樹業者들의 萬般便宜를圖하기爲하여 純朝鮮人의힘으로 組織된機關이有하니 그는 鎭南浦果物興業株式會社이다 同會社는昭和二年二月에 權正敏、金志侃、朴璇齊、李根軾、魯起元、林昌夏外諸氏의發起로 創立되여 一株五十圓 千株五萬圓의 資本으로上海、하루빈方面에 確實한販路를開拓키에不斷의努力을하여 왓다 社長金志侃氏는 農科大學出身으로 朝鮮人側으로初代의果樹經營者인데 現在노市外大代面에 數千株의 最大規模의果樹園을經營하는一方 直接間接으로指導하고잇스며 專務取締役朴璇齊氏는일즉이 米洲에건너가서 十餘年修學하고 錦衣還鄕하여 敎育界와 宗敎界에 多年從事하다가 同會社創立以來十餘星霜을 專心努力中인데 德望이놉흐니만치 會社의成績도良好하며 今年에七千餘圓工費의三府洋屋으로 現代的인社屋을新築하여 一層活氣를띄고잇는데 苹果의都市鎭南浦에 업지못할機關으로 一年二三次式滿洲方面에 出張하여 大大的으로販路開拓에 努力하고잇느니만치從來가매우企待된다

穀物界의覇者

金山商會主 金秉琓氏



氏는江西出生으로 數年前龍岡郡瑞和面自福市에 移住하면서 運輸業에 從事하다가 今般府內漢頭里에모ー단式商店을 新築하고 去十月一日부터 金山商會란商號로 一躍穀物界로進出하엿는대 自家用貨物車가八臺나잇서서 距里의遠近을不問하고 顧客의便宜를 圖하고잇서서 將來優良한成績을 豫期하며 氏는大成學校出身으로 偉人이俊秀하고 忠實한性格의所有者이니만치 各方面으로 信望이有하여 일즉이 龍岡金融組合長으로 多年奉職하엿고 昨年에平安道府議員으로當選되엿는데 氏의父親金晋洙氏도 昨年까지道議員으로 果然歷代로 多年間活躍하는분으로 大衆을爲하야 그의抱負를發揮하고 잇는이만치 將來가매우囑望된다 (◇寫眞은金秉琓氏)

網緞布木界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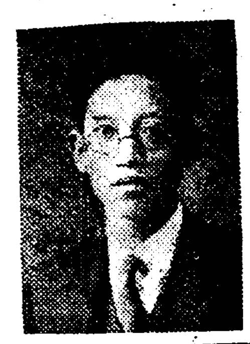
東一商店 李東殷氏

鎭南浦朝鮮人市街中央의 前警察署地에新築한모ー단式商店이 氏의商店이라 氏는靑年實業家로 일즉이商界에 進出하여 材木商으로大成功을하엿는데 그의伯氏李東根氏가 現在經營하고잇는東一木村商店이 氏의努力한結晶이며 今春부터 또한바잇서 布木界로 方向을轉換하여가지고 大規模로 開店하엿는데 商店의設備나 物品의陳列이 現代式일뿐아니라 各色物品이具備하엿고 特히 薄利多賣主義이기때문에 實로 滿都의人氣가集中되여 布木界의 王座를占하고잇는바 氏는品性이 溫厚하고 責任感이强하기때문에 各方面에 信望과德望이 敦篤하며 社會事業으로도 現碑石里監理敎會附屬인 夜學의 經費를負擔하여가며 經營하고잇는이만치 從來가매우企待된다 (◇寫眞은李東殷氏와그의商店)

◇―南浦最大布木商東一商會店과李東殷氏

南浦의刀圭界

醫療界의巨星 廣濟醫院長 蔡哲洙氏



廣濟醫院은市街中央에모ー단式建物을볼수잇스니 氏의病院이다 氏는 龍岡生長으로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兵庫縣姬路 赤十字病院에서 三年間 研究한후 故鄕인 廣梁灣에서 開業하엿는데 氏의 獨特한 技術은 一般에게名聲이 놉흘뿐아니라 溫柔雅毅한人格의所有者로 社會的으로도 定評이놉흐니만치 業績이優良하여 今春에四千餘圓으로 院舍까지新築하여 刀圭界의巨星이며 龍岡郡醫師會를兼하고 잇는바將來가매우企待된다 (◇寫眞은蔡哲洙氏)

齒科界의元老 江南齒科院長 李鎬坤氏

氏는江西出生으로 일즉이京城齒科醫學校를 卒業하고 至今으로부터 十年前에當地에서 開院하엿는데 實로大衆的이요또奉仕的이기때문에 今日의成功을보고왓스며 在學時代에는 六尺이니 빼다구이니하는別名을가젓든 豪活한男兒로 學資困難으로 親友에만흔도음도밧엇고 自身으로서는苦學으로 「구즈나오시」는노래를 불넛다고한다 特히氏는東洋人에顯骨迷勸과 口腔衛生에對한細菌學을 研究中인바 今後로만흔活動과 研究를거듭하여 齒科界의權威者이되여주기를바라는바 十餘年間써혼 經驗으로나設備로나充分한 技工師까지잇서서 好績을보고잇는데 氏야말로八方美人으로 鎭南浦社會의업지못할人物이다 (◇寫眞은李鎬坤氏)

齒科專門 文化醫院長 柳成璉氏

氏는 京城徽文高普를卒業하고 京城齒科醫學校三年制에 入學하야卒業後 다시同校가四年制專門學校로 昇格됨을따라 一層더研究코저 文部省에서施行하는編入試驗에 合格되여 本科生으로는 昭和五年에第一回로卒業하엿는데 朝鮮人側으로는 氏가第一位를 占하엿나 本是大都市京城에서 開業하려다가 外事情으로 昭和六年三月에當地에開業하엿는데 當年二十九歲靑年으로 朝鮮初有의齒科醫學士이니만치 最良한成績을보고잇슴으로 不遠한 將來에院舍도新築하리라하며 在學時代도留學生會會長으로 活動하엿스며 現在도 留學生會書記長으로 잇는바그박게도 社會的으로不斷의活躍을하고잇다 (寫眞은柳成璉氏)

南浦齒科醫院 院長 崔梅智氏

當地唯一의 女齒醫로일즉이京城梨花學校를卒業하고 敎育界에多年從事하다가 大正八年事件으로 三年間獄中生活을하고 뜻을決한후 醫界로方向을轉換하여 東京女子齒科醫學專門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故鄕인當地에 開業하엿는데 業績이良好하다 氏는鎭南浦女子界의代表的人物로 直接間接으로社會事業에 만흔活躍을하고잇는一方 篤實한基督敎信者로 靑年會와 宣敎會 幼稚園等의 事業을가지고 犧牲的努力을하고잇다 氏는天品이男性的이면서 多情多感하여 社交術이敏活한故로 在獄時나學生時代를勿論하고 人氣的人物이엿다고하는바 當地唯一의女齒醫이니만치 成績이良好한데 龍岡溫泉에 出張所까지設置코저準備中이라고한다 (◇寫眞은崔梅智氏)

三和醫院長 金養植氏

氏는平壤出生으로 일즉이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平壤慈惠醫院에서 多年勤務하다가 自今十餘年前當地에 開業하엿는데 南浦刀圭界의 元老로天品이順厚할뿐아니라 平素篤實을行主義로處世하는이만큼 各方面으로 定評을밧고잇는人物이며 社會的으로도 三崇普通學校理事와 鎭南浦體育會副會長으로 活躍하는重鎭人物이다

溫泉龍海醫院 院長 韓東煥氏

平原郡順安出生으로 平壤光成高普를卒業하고 京城世富蘭偲醫學專門學校에入學하여 昭和七年에 同校를優秀한成績으로卒業한후 平壤聯合基督病院에서 一年間研究하다가 當地에서 開業하엿는데 氏는二十八歲의 靑年醫師로 篤實한基督信者일뿐아니라 天品이溫厚多情한데 溫泉附近一帶에도 數千에居住民이잇지만 全朝鮮各地에서遊覽客이不絕하는 溫泉의醫生인 사람이잇슬뿐으로 完全한醫療機關이업슴을 遺憾으로思하든바 氏가開業케되엿슴으로 溫泉의面目이一新케되엿다고하여 一般的으로 絕對信任을밧고잇다 (◇寫眞은韓東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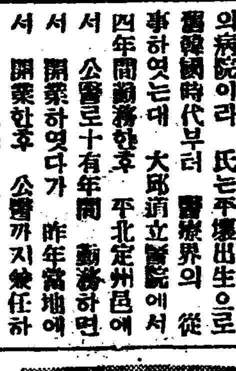
自福朝香醫院 院長 趙德潤氏

氏는平安出生으로 順安義明中學校를卒業하고 本是文藝方面에趣味를가지고 上海로건너가서 滬江大學에서 二年間文科를專攻하다가 氏의慈親金一信女史가일즉이 醫療界에從事하든關係로 母親의命令을順服하고 方向을轉換하야 平壤醫學講習所에入學하여 昭和三年에優秀한成績으로卒業한후는 三和邑에서開業하엿다가 昭和七年에 自福市에서開業하엿는데 本是天品이順厚할뿐아니라 宗敎的家庭에서生長하니만치 溫柔謙遜하여 待人接物에 圓滿主로一貫하기때문에 瑞和面一帶는勿論 附近各地에서 絕大歡迎을밧고잇는데 그의母親을爲始하여 氏의婦人도 平壤基督病院에서 多年間醫界에從事하여 實로家庭이 斯界에活躍하고잇는中임으로 刀圭界의王座를占하고잇다 (◇寫眞은趙德潤氏)

濟衆醫院長 黃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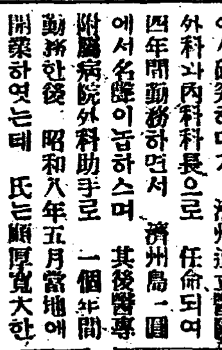
鎭南浦朝鮮人市街 中央에廣大한 三層洋屋을 볼수잇스니 氏의病院이라 氏는平壤出生으로 舊韓國時代부터 醫療界에 從事하엿는데 大邱道立醫院에서 四年間勤務한후 平北定州邑에서 開業한후 公醫까지兼任하여 十有年間 勤務하다가 昨年當地에 開業하고잇다 氏는 溫厚多情한性格의所有者로 各方面으로도 名聲이놉흐니만치 開業한지 日淺하나 良好한成績을 보고잇는데 氏는 爲事의加減은 人物로社會的으로 만흔活動을하고잇다

海東醫院院長 林鎭海氏



氏는龍岡郡吾新面出生으로 京城中東學校를 卒業한후 京城醫學專門學校에入學하여 昭和四年에同校를卒業하고 同校內科에서研究하다가 濟州道立醫院外科와內科科長으로 任命되여 四年間勤務하면서 濟州島一圓에서名聲이놉하스며 其後醫專附屬病院外科助手로 一個年間勤務한後 昭和八年五月當地에開業하엿는데 氏는順厚寬大한性格의所有者로 獨特한技術이 잇는이만치 名聲이놉하將來가 매우有望하다 (◇寫眞은林鎭海氏)

龍井醫院長 李顯桂氏



氏는龍岡郡三和出生으로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當地에開業한지 十有星霜의長久한歷史를가진 鎭南浦醫療界의元祖로 特히內科와小兒科의特長으로 名聲이놉하 優良한成績을보게되며 昨年龍井里에現代式으로三層洋屋의 院舍까지新築하엿다 氏는溫柔雅毅한性格의所有者로 萬事의理解力이만흐며 公正無私主義로 處世하는이만치 各方面으로信望과德望이놉흔人物이다 (◇寫眞은李顯桂氏)

滬澤式蓄電池 總代理店本部 河井正一氏

氏는自今二十餘年前 當地에來着하면서 小規模의雜貨商을經營하여왓는데 商業의骨子인信用과正直을目標로 突進하여 只今은 大規模의商店이되엿다 氏의信望과手腕을 採用한特히滬澤式蓄電池會社에서는 朝鮮總代理店本部의 責任者로任命되엿는데 氏도처음에는 一時躊躇的事業이나아닌가 疑心하엿스나 實地體驗한結果 確實有利하고 永久的事業임을 覺悟하고 引受하여 活動한結果 [illegible]

祝鎭南浦地方紹介版

三和組

共生社勞働部 組長 姜偉情 鎭南浦龍井里 電話[illegible]

鎭南浦三和町 三光精米所 三光印刷所 電話三二七番

鎭南浦 南浦金融組合長 商工會議所副會頭 府會議員 象山郁次郎

龍岡溫泉 設備完全 淸潔親切 只繩旅館

道立鎭南浦醫院 院長 高木季生

鎭南浦無盡株式會社 社長 佐藤長五郎

日本鑛業株式會社 專務取締 高橋泰藏

鎭南浦製錬所

鎭南浦 三崇普通學校 電話七一四番

鎭南浦 物産客主組合

鎭南浦警察署長 池內勝太郎

鎭南浦産業組合

廣梁灣 廣梁醫院長 金義鉉

龍岡郡海雲面長 金泰熊